

세상의 속도를  
따라잡고 싶다면



# 점프 투 파이썬

박응용 지음(위키독스 운영자)



# 파이썬 날아오르기



- 07-1 파이썬과 유니코드
- 07-2 클로저와 데코레이터
- 07-3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
- 07-4 파이썬 타입 어노테이션



## ■ 최초의 문자 셋, 아스키코드

-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값만 인식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므로 우리가 입력하는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함
-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마다 문자를 매핑(mapping)하는 문자 셋(character set)을 만드는 것
- 아스키(ASCII) 코드란 미국에서 최초로 만든 문자 셋 표준
  - 영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영문자, 숫자 등 127개의 문자 처리 가능

## ■ 유니코드의 등장

-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문자를 컴퓨터로 표현하고자 하여 아스키를 사용할 수 없음
- 서유럽 문자셋인 ISO8859와 한국 문자 셋인 KSC5601 등이 등장하기 시작
- 모든 나라의 문자를 포함하도록 만든 유니코드(unicode)의 등장,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음

## ■ 유니코드로 문자열 다루기

### ■ 인코딩하기

- 유니코드 문자열을 바이트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

```
>>> a = "Life is too short"
>>> b = a.encode('utf-8')
>>> b
b'Life is too short'
>>> type(b)
<class 'bytes'>
```

- utf-8을 인수로 인코딩

- 한글을 오류 없이 인코딩하는 방법

```
>>> a = "한글"
>>> a.encode('euc-kr')
b'\xc7\xd1\xb1\xdb'
>>> a.encode('utf-8')
b'\xed\x95\x9c\xea\xb8\x80'
```

- euc-kr 또는 utf-8을 인수로 인코딩

## ■ 유니코드로 문자열 다루기

### ■ 디코딩하기

- 인코딩한 바이트 문자열을 유니코드 문자열로 변환하려면 인코딩 방식을 똑같이 맞춰줘야 함

```
>>> a = '한글'
>>> b = a.encode('euc-kr')
>>> b.decode('euc-kr')
'한글'
```

- 잘못된 인코딩 방식으로 디코딩하려고 하면 오류 발생

```
>>> b.decode('utf-8')
Traceback (most recent call last):
  File "<stdin>", line 1, in <module>
UnicodeDecodeError: 'utf-8' codec can't decode byte 0xc7 in position 0: invalid continuation byte
```

## ■ 유니코드로 문자열 다루기

### ■ 입출력과 인코딩

#### ■ 파일을 읽거나 네트워크를 주고받을 때 추천하는 방법

- ① 입력으로 받은 바이트 문자열은 되도록 빨리 유니코드 문자열로 디코딩한다.
- ② 함수나 클래스 등에서는 유니코드 문자열만 사용한다.
- ③ 입력에 대한 결과를 전송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만 유니코드 문자열을 바이트 문자열로 인코딩해서 반환한다.

## ■ 유니코드로 문자열 다루기

### ■ 입출력과 인코딩

- 예) euc-kr 방식으로 작성한 파일을 읽고 변경하여 저장하기

```
# 1. euc-kr로 작성된 파일 읽기
with open('euc_kr.txt', encoding='euc-kr') as f:
    data = f.read() ← 유니코드 문자열

# 2. unicode 문자열로 프로그램 수행하기
data = data + "\n" + "추가 문자열"

# 3. euc-kr로 수정된 문자열 저장하기
with open('euc_kr.txt', encoding='euc-kr', mode='w') as f:
    f.write(data)
```

- open( ) 함수가 encoding으로 읽은 문자열은 유니코드 문자열
- encoding 항목을 생략하면 기본값으로 utf-8이 지정됨



## ■ 유니코드로 문자열 다루기

### ■ 소스 코드의 인코딩

- 소스 코드 파일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되었는지를 뜻함
- 소스 코드도 파일이므로 인코딩 타입이 반드시 필요
- 파이썬 소스 코드 가장 위에 인코딩을 명시하는 문장 병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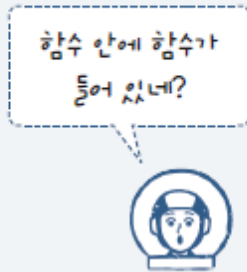
```
# -*- coding: utf-8 -*-
```

```
# -*- coding: euc-kr -*-
```

## ■ 클로저(closure)란?

- 함수 안에 내부 함수(inner function)를 구현하고 그 내부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
- 이때 외부 함수는 자신이 가진 변수값 등을 내부 함수에 전달할 수 있음

```
def mul(m):  
    def wrapper(n):  
        return m * n  
    return wrapper  
  
if __name__ == "__main__":  
    mul3 = mul(3)  
    mul5 = mul(5)  
  
    print(mul3(10))  
    print(mul5(10))
```



실행 결과

30  
50

- 외부 함수 mul 안에 내부 함수 wrapper를 구현
- 외부 함수는 내부 함수 wrapper를 리턴

## ■ 데코레이터(decorator)란?

- 기존 함수를 바꾸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드는 클로저
- @ 문자를 이용해 함수 위에 적용하여 사용 가능
  - 파이썬은 함수 위에 @+함수명이 있으면 데코레이터 함수로 인식
- 예) 함수의 실행 시간 측정하기

```
import time

def elapsed(original_func):
    def wrapper():
        start = time.time()
        result = original_func()
        end = time.time()
        print("함수 수행 시간: %f초" % (end - start))
        return result
    return wrapper

@elapsed
def myfunc():
    print("함수가 실행됩니다.")

# decorated_myfunc = elapsed(myfunc)
# decorated_myfunc()

myfunc()
```

# 기존 함수를 인수로 받는다.

# 기존 함수를 수행한다.

# 기존 함수의 수행 시간을 출력한다.

# 기존 함수의 수행 결과를 리턴한다.

**실행 결과**

함수가 실행됩니다.

함수 수행 시간: 0.000029초

## ■ 데코레이터(decorator)란?

- 데코레이터는 기존 함수가 어떤 입력 인수를 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함수의 입력 인수에 상관없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함
- 기존 함수의 입력 인수를 알 수 없는 경우 \*args와 \*\*kwargs 매개변수 이용

```
import time

def elapsed(original_func):
    def wrapper(*args, **kwargs):
        start = time.time()
        result = original_func(*args, **kwargs)
        end = time.time()
        print("함수 수행 시간: %f초" % (end - start))
        return result
    return wrapper

@elapsed
def myfunc(msg):
    """ 데코레이터 확인 함수 """
    print("'%s'을 출력합니다." % msg)

myfunc("You need python")
```

# 기존 함수를 인수로 받는다.  
# \*args, \*\*kwargs 매개변수 추가  
# \*args, \*\*kwargs를 입력 인수로  
기존 함수 수행  
# 수행 시간을 출력한다.  
# 함수의 결과를 리턴한다.

**실행 결과**

'You need python'을 출력합니다.  
함수 수행 시간: 0.000027초

## ■ 이터레이터(iterator)란?

- next 함수 호출 시 계속 그다음 값을 리턴하는 객체
- 리스트처럼 반복 가능(iterable)하다고 해서 이터레이터는 아니지만, iter 함수를 이용해 이터레이터로 만들 수 있음
- for 문을 이용해 이터레이터 값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
  - for 문이나 next로 그 값을 한 번 읽으면 그 값을 다시는 읽을 수 없음

```
>>> a = [1, 2, 3]
>>> ia = iter(a)
>>> for i in ia:
...     print(i)
...
1
2
3
>>> for i in ia:
...     print(i)
...
>>> ← 값이 출력되지 않는다.
```

## ■ 이터레이터 만들기

- 클래스에 `__iter__`와 `__next__`라는 2개의 메서드를 구현하여 만드는 방법
  - `__iter__` 메서드는 해당 클래스로 생성한 객체를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드는 역할
  - `__next__` 메서드는 반복 가능한 객체의 값을 차례대로 반환하는 역할

```
class MyIterator:
    def __init__(self, data):
        self.data = data
        self.position = 0

    def __iter__(self):
        return self

    def __next__(self):
        if self.position >= len(self.data):
            raise StopIteration
        result = self.data[self.position]
        self.position += 1
        return result

if __name__ == "__main__":
    i = MyIterator([1,2,3])
    for item in i:
        print(item)
```

실행 결과

1  
2  
3

## ■ 이터레이터 만들기

- 입력받은 데이터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Reverseliterator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

```
class ReverseIterator:
    def __init__(self, data):
        self.data = data
        self.position = len(self.data) - 1

    def __iter__(self):
        return self

    def __next__(self):
        if self.position < 0:
            raise StopIteration
        result = self.data[self.position]
        self.position -= 1
        return result

if __name__ == "__main__":
    i = ReverseIterator([1,2,3])
    for item in i:
        print(item)
```

실행 결과

3  
2  
1

## ■ 제너레이터(generator)란?

- 이터레이터를 생성해 주는 함수
- 이터레이터와 마찬가지로 next 함수 호출 시 그 값을 차례대로 얻을 수 있음
  - 차례대로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 return 대신 yield 키워드 사용

```
>>> def mygen():  
...     yield 'a'  
...     yield 'b'  
...     yield 'c'  
...  
>>> g = mygen()
```

```
>>> next(g)  
'a'
```

```
>>> next(g)  
'b'
```

```
>>> next(g)  
'c'  
>>> next(g)  
Traceback (most recent call last):  
  File "<stdin>", line 1, in <module>  
StopIteration
```

- 네 번째 next를 호출할 때는 더 리턴할 값이 없으므로 StopIteration 예외 발생



## ■ 제너레이터 표현식(generator expression)

- 제너레이터는 def를 이용한 함수로 만들 수 있지만, 튜플 표현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음
  - 리스트 컴프리헨션(list comprehension) 구문과 비슷하지만 리스트 대신 튜플을 이용함

```
def mygen():  
    for i in range(1, 1000):  
        result = i * i  
        yield result
```

```
gen = mygen()
```

```
print(next(gen))  
print(next(gen))  
print(next(gen))
```

gen = (i \* i for i in range(1, 1000))

### 실행 결과

```
1  
4  
9
```

## ■ 제너레이터와 이터레이터

- 클래스를 이용해 이터레이터를 작성하면 좀 더 복잡한 행동을 구현 가능
-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 있음
- 이터레이터의 성격에 따라 클래스로 만들 것인지, 제너레이터로 만들 것인지를 선택

- 예) `(i * i for i in range(1, 1000))` 제너레이터를 이터레이터 클래스로 구현

```
class MyIterator:
    def __init__(self):
        self.data = 1

    def __iter__(self):
        return self

    def __next__(self):
        result = self.data * self.data
        self.data += 1
        if self.data >= 1000:
            raise StopIteration
        return result
```

## ■ 제너레이터 활용하기

-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호출하여 사용하는 **느긋한 계산법**(lazy evaluation)
- 예) 총 실행 시간이 1초인 longtime\_job 함수를 5번 실행해 리스트에 그 결과값을 담고 그 첫 번째 결과값을 호출

### 실행 결과

```
job start  
done
```

```
import time  
  
def longtime_job():  
    print("job start")  
    time.sleep(1)  
    return "done"  
  
list_job = (longtime_job() for i in range(5))  
print(next(list_job))
```

## ■ 동적 언어와 정적 언어

- 파이썬은 **동적 프로그래밍 언어**(dynamic programming language)
  -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수의 타입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음

```
>>> a = 1
>>> type(a)
<class 'int'>
```

```
>>> a = "1"
>>> type(a)
<class 'str'>
```

- 자바는 **정적 프로그래밍 언어**(static programming language)
  - 한 번 변수에 타입을 지정하면 지정한 타입 외에 다른 타입은 사용할 수 없음

```
int a = 1;  ← a 변수를 int형으로 지정
a = "1";   ← a 변수에 문자열을 대입할 수 없으므로 컴파일 오류 발생
```

- 동적 언어와 정적 언어

- 동적 언어의 장단점

- 장점: 유연한 코딩이 가능하므로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 
타입 체크를 위한 코드가 없으므로 비교적 깔끔한 소스 코드 생성 가능
    - 단점: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타입을 잘못 사용해 버그가 생길 확률도 높아짐

## ■ 파이썬 타입 어노테이션(type annotation)

- 동적 언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이썬 3.5 버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기능
- 타입의 힌트를 알려 주는 정도의 기능만 지원
- 동적 언어의 장점을 잃지 않고 기존에 작성된 코드와 호환 가능

```
num: int = 1
```

```
def add(a: int, b: int) -> int:  
    return a + b
```

## ■ mypy

- 파이썬 타입 어노테이션은 체크가 아니 힌트 정도의 역할
- 적극적으로 파이썬 어노테이션을 활용하려면 mypy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
- mypy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므로 설치한 후에 사용 가능 `c:\doit>pip install mypy`
- 예) 타입 어노테이션으로 매개변수의 타입을 명시하더라도 다른 타입의 인수 입력 가능

```
def add(a: int, b: int) -> int:  
    return a + b
```

```
result = add(3, 4)  
print(result)
```

```
C:\projects\pylib\>mypy typing_sample.py  
Success: no issues found in 1 source file
```



*"Life is too short,  
You need Python!"*

인생은 너무 짧으니,  
파이썬이 필요해!

감사합니다.